

# Kathy Stephens' Korea 1975-1977



심은경이 담은 한국 1975-1977



With thanks and gratitude always to all who shared Korea with me.  
한국에서 나와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항상 감사 드린다.

## Introduction

I lived in Korea for two years as a Peace Corps volunteer, from 1975-1977. I had a camera, and I enjoyed taking photographs. But color film and prints were expensive, so I generally took either black and white photos or color slides. Cameras were not common in the Korean countryside, and when people took photos it tended to be on special occasions. As a foreigner, though, everyday life interested me.

I stored these photographs away for many years, but I've brought them back out because so many people have asked me about my memories of that time. I have also heard from young Koreans great curiosity and interest in what Korea used to be like.

Many of these photographs were taken in Yesan, where I taught at Yesan Middle School from 1975-1976. Starting in 1976 I travelled throughout South Chungcheongnam Province conducting demonstration classes and teacher training workshops in dozens of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 also spent summer and winter breaks in training and teaching sessions throughout Korea, from Gwangju to Chuncheon, from Namhae to Cheongju, so I saw a lot of Korea.

Neither the technical nor the aesthetic quality of these photos is high, but I hope that along with my sometimes shaky memory of those days, they might be of interest in recalling a Korea that has now in many ways passed from the scene forever. What has not faded or disappeared, however, is the warmth, curiosity and ambition of the Korean people; I saw it then, and I see it today, too.

## 인사말씀

1975년에서 1977년까지 나는 평화봉사단원으로 일하며 2년 동안 한국에 살았다. 그 때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당시 컬러 필름과 현상이 매우 비싸 주로 흑백사진이나 컬러 슬라이드를 찍었다. 그 시대에는 한국 농촌에서 카메라가 매우 귀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나 같은 외국인에게는 사람들의 모든 소소한 일상이 특별했다.

오랜 세월동안 먼지 속에 묻어둔 낡은 사진들을 다시 꺼낸 이유는 많은 이들이 당시 한국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도 그 시대 한국의 생활상에 대해 알고 싶어했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내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1975년에서 1976년까지 내가 교편을 잡았던 예산중학교가 위치한 예산에서 찍은 것이다. 1976년부터 나는 충남 여러 지역을 돌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시범수업이나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또 여름과 겨울방학 때는 광주에서 춘천, 남해에서 청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두루 다니며 연수나 강의를 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

이 사진집에 실린 사진들이 기술적으로 탁월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생활상에 대한 나의 희미한 기억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정겨웠던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내가 그때 보았던 한국인의 따뜻함, 호기심 그리고 꿈은 지금도 그대로다.

# Kathy Stephens' Korea 1975-1977

심은경이 담은 한국 1975-1977



Spring hike with Yesan Middle School students, Yesan

예산 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간 봄 나들이, 예산

These students were in my English conversation class. On weekends, or sometimes after class, we would walk up the hill behind the school and enjoy the view.

사진의 학생들은 내가 영어회화를 가르쳤던 중학생들이다. 우리는 방과 후나 혹은 날씨가 좋은 주말을 틈타 학교 뒷산에 올라가 경치를 감상하며 같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곤 했다.



Yesan, 1976  
예산, 1976

This photo was published in Korean newspapers when my name was first announced as the new U.S. Ambassador to Korea. It was taken on a Saturday when the second-year students from my early morning English conversation class visited my house in Yesan. Students had classes on Saturdays and only a few had clothes other than their school uniforms to wear for weekend outings like this one. The little girl in my lap was the daughter of the family who owned the house. The boy with the glasses is Mr. Park, Chan-il, now a science teacher at Yesan Girls' Middle School. I saw him in 2008 when I returned to Yesan and I've caught up with several other students from this photo as well.

이 사진은 내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사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한국 언론에서 보도했던 사진이다. 내 오전 영어회화 수업을 듣던 2학년 학생들이 어느 토요일 우리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다. 그 때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었고 이 같은 주말 나들이때 교복 이외에 다른 입을 옷이 있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내 무릎에 앉아 있는 어린 여자아이는 내 하숙집 주인 딸이고 안경을 쓰고 있는 남학생이 지금 예산여자중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박찬일 선생이다. 2008년 내가 예산을 다시 방문했을 때 박 선생뿐 아니라 이 사진에 찍힌 여러 명의 제자들과 반갑게 해후했다.



Boy with flowers, Yesan

꽃을 든 소년, 예산

This sweet little boy was bright and outgoing. We walked in the rice paddies together and admired the cosmos flowers growing along the dirt road.

이 귀여운 꼬마 녀석은 뽀뽀하고 활달했다. 우리는 논을 함께 걸으며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구경했다.

This is at my house in Yesan with a Peace Corps volunteer (pictured) who worked at the Yesan health clinic on a tuberculosis project and some of the children around the house.

This was a classic Korean farm home. We spent a lot of time on the polished wood maru connecting the ondol rooms and the outdoors. The kitchen was off to the side. There was a well in the courtyard. The ajumma of the house would bring a bucket of hot water to the maru every morning. That's the way the Korean life was lived; you always felt the elements which made you keenly aware of the seasons.



Visitors at home in Yesan  
예산 집에 온 손님들

내가 살던 예산 집의 모습이다. 예산 보건소에서 결핵 퇴치 활동을 하던 평화봉사단 친구와 아이들을 함께 담았다.

내가 살던 집은 전형적인 한국 농가로 나는 온돌방과 바깥 공간을 이어주는 나무 마루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부엌은 옆쪽에 있었고 앞마당에 우물도 있었다. 매일 아침 하숙집 아줌마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마루로 갖다 주곤 했다. 계절이 오고감이 일상에 질게 녹아 있는 삶, 그것이 그 시대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Rice paddies in winter, Chungcheongnam-do

벼를 베고 난 후의 논, 충남

I enjoyed watching the way the patterns and textures of the rice paddies changed with the seasons. In rural life, winter and early spring had little color but there were always strong patterns and deep blue skies.

계절에 따라 변하는 논의 정렬된 모습과 질감을 느껴보는 것이 참 좋았다. 농촌의 겨울과 초봄에는 논에서 별다른 색깔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가지런히 정렬된 모습과 눈부시게 파란 하늘만큼은 늘 변함없었다.





Festival gathering  
마을 축제

### Men at the town festival, Buyeo 마을 축제에 오신 할아버지들, 부여

I confess I tend to take a lot of pictures of older people and children. Children because they were so open in their interest and curiosity, and loved having their pictures taken, and older people because they more often tended to be wearing hanbok. Back in the seventies, Koreans my age thought this was terribly old-fashioned and were very interested in Western clothing, but I found the way these men dressed to be quite elegant. I appreciated their transition to modernity and the way that they combined hanbok with a western style hat and a simple cane.

사실 나는 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었다. 아이들의 경우 그 호기심과 열성을 담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며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당시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한복이 아주 촌스럽고 구식이라 생각하고 서양식 옷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나는 어르신들이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매우 우아하다고 생각했다. 사진에 찍힌 어르신들의 한복과 서양식 중절모 그리고 지팡이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현대적으로 변해가던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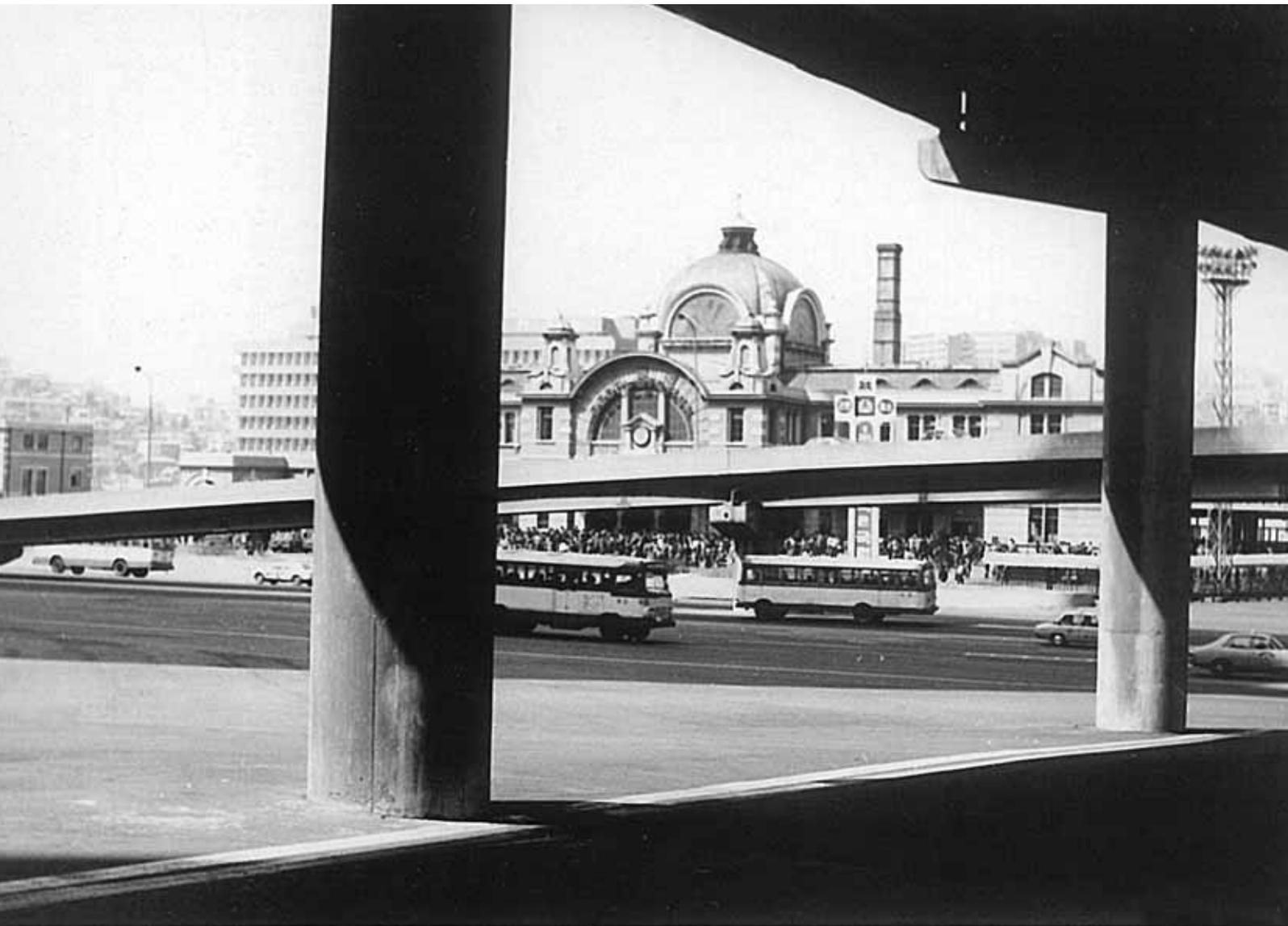


## Yesan suburbs

### 예산 근교

My friend and co-teacher Ms. Kwon, Young-ran sent me this photo. We can't remember who took the photo but Ms. Kwon recalls that it was taken during one of our frequent walks in the "Yesan suburbs."

나의 친구이자 동료교사였던 권영란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이다. 누가 이 사진을 찍어줬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자주 예산 근교에서 함께 산책을 하곤 했는데 그 중 어느 하루에 찍은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I loved Seoul Station, and I loved riding the trains. Looking at the traffic in this photo reminds me of how very few private cars there were in those days. If you did see a private car it was generally a black sedan assumed to belong to a government official. You mostly saw buses and taxis on Seoul's streets. Taxis could sometimes be very hard to come by.

난 서울역을 사랑했다. 기차 타는 것도 너무 좋아했다. 사진에 찍힌 도로를 보면 당시에 개인 승용차가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다. 가끔 보이는 승용차도 보통은 정부 관리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서울 거리에서 보이는 차는 주로 버스나 택시였고 때로는 택시조차도 보기 힘들었다.

Seoul Train Station, Seoul  
서울역, 서울

## Girls at Gyeongbokgung Palace, Seoul

경복궁에서 만난 아이들, 서울

In those days, even in Seoul, foreigners attracted great attention. These girls were full of life and laughter, and curiosity about me. They were also very excited to have their picture taken.

그 시대에는 서울에서도 외국인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생기와 웃음이 넘치는 이 꼬마 아이들도 나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을 찍어준다니 무척이나 들떠서 좋아했다



Thatched house in Chungcheongnam-do village  
충남 한 마을의 초가집

In the 1970s, the Saemaeul movement was changing Korean village life by funding the installation of electrical lines, improved roads and agricultural practices, and the replacement of thatch roofs with metal. My Korean coworkers didn't understand why I always sought out pictures of thatched houses, they were thought to be backward. But before coming to Korea I had spent a summer living in a thatched house in County Hampshire, in the English countryside. I loved the look of thatch. I was sad to see thatch disappearing in Korea.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마다 송전선이 깔리고 도로가 놓이고 농사법이 개선되고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면서 한국 농촌 생활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 초가집은 낡고 낙후된 것으로 여겨졌던 만큼 함께 일한 한국 동료들은 내가 왜 늘 초가집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전 영국 교외에 있는 County Hampshire 의 한 초가집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 초가집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 한국에서는 이제 초가집을 볼 수 없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Yesan Middle School, Yesan  
예산중학교, 예산

At the boys' middle school where I taught there were only a few women teachers. We were all expected to stick together. The tennis court behind us is where I played tennis, which was a great way to get to know the other teachers, male and female.

내가 근무했던 예산중학교는 남자중학교로서, 여교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교사들끼리 자주 뭉치며 친하게 지냈는데 나는 사진 뒤쪽에 보이는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며 성별을 초월해 모든 동료 교사들과 가까워졌다.



Children in the countryside, Yesan  
시골 아이들, 예산

When I would go walking in the countryside in Korea in those days I would usually gather a cluster of children who had never seen a foreigner before. This photograph shows a little of their bemusement, curiosity, and caution.

그 때는 시골 산책을 나갈 때마다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내 주변에 늘 몰려들었다. 이 사진에서도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어린 아이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The sound of dadeumijil  
다듬이질 소리



The festival high swing  
그네타기



Before I came to Korea I read about these very high swings on which women would traditionally swing during festivals. In person it was thrilling and also a little frightening to see how enthusiastically and daringly these ordinary women would s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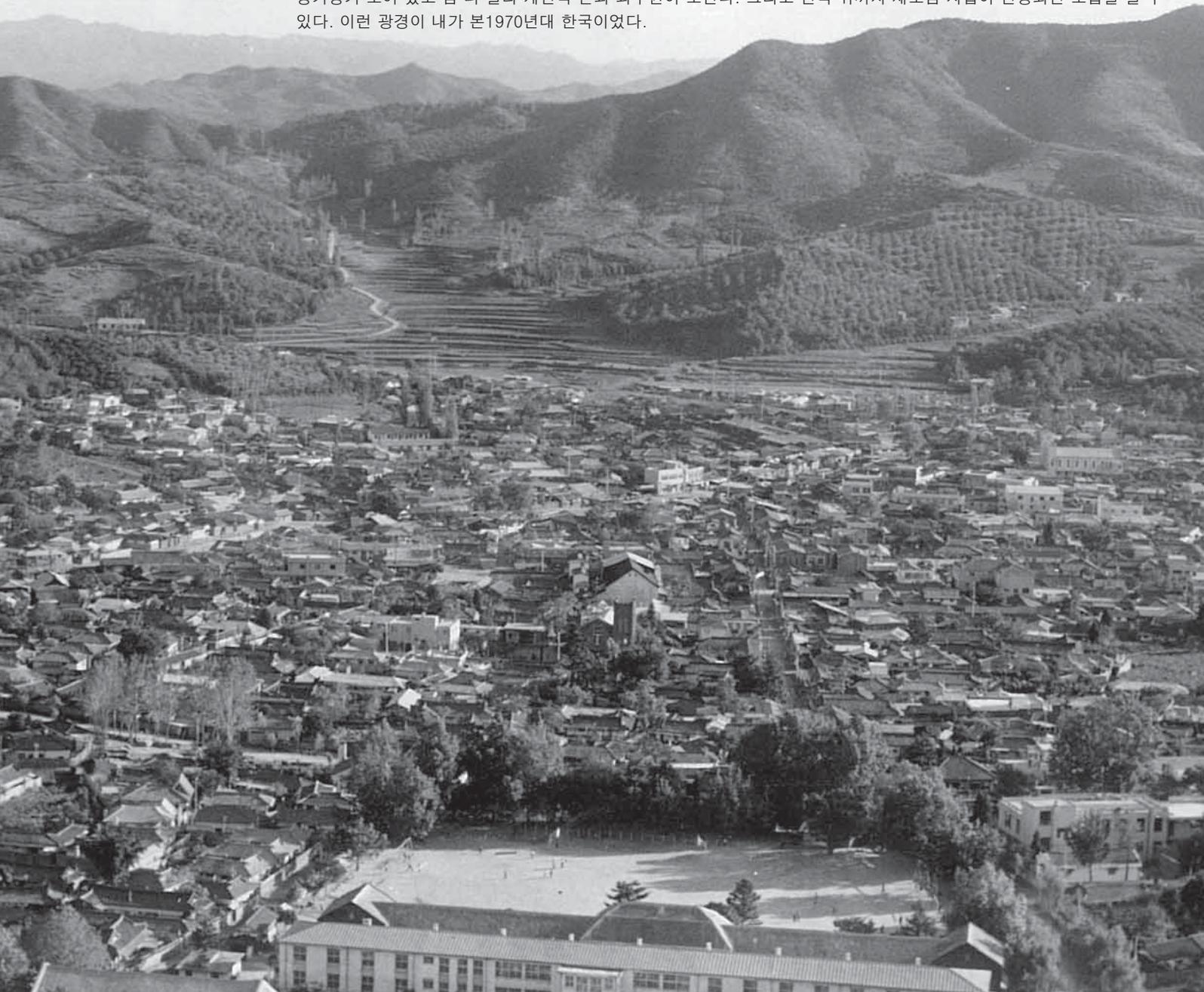
처음 한국에 오기 전 마을 축제 때 여자들이 탄다는 전통 그네에 관해 읽은 적이 있다. 그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네 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짜릿했다. 하지만 평범한 여자들이 이렇듯 과감하게 그네 타는 것을 보고 약간 무섭기도 했다.

## Korean country town

### 한국의 시골 풍경

This photograph could be of almost any country town in Korea at the time. The school is a prominent feature in the landscape and it is surrounded by clusters of houses. Further out are the terraced rice paddies and then the orchards and reforestation reaching up into the hills. This is the Korea I knew in the 1970s.

당시 어느 시골 마을도 그 풍경이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리라.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 학교를 중심으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좀 더 멀리 계단식 논과 과수원이 보인다. 그리고 언덕 위까지 재조림 사업이 진행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광경이 내가 본 1970년대 한국이었다.



## Spring day at home in Yesan

### 어느 봄날의 예산 집

This is the same little girl who was on my lap in an earlier photo. She was very sociable and I learned a lot of Korean from her. Here she is talking with my co-teacher Ms. Kwon, Young-ran. The bicycle in this photo reminds me how much freedom a bicycle offered in those days. I loved riding along the country paths that connected villages throughout Chungcheongnam-do.

사진 속의 아이가 앞에서 내 무릎에 앉아 있던 아이다. 내 동료교사 권영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어찌나 불임성이 좋았는지 내가 이 꼬마 아가씨한테서 한국말을 참 많이 배웠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자전거를 보니 당시 자전거 덕분에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녔던 기억이 난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충청남도 마을 이곳저곳을 이어주는 시골길을 따라 돌아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다.





Entertainers at the fall festival, Buyeo  
가을 축제 농악대,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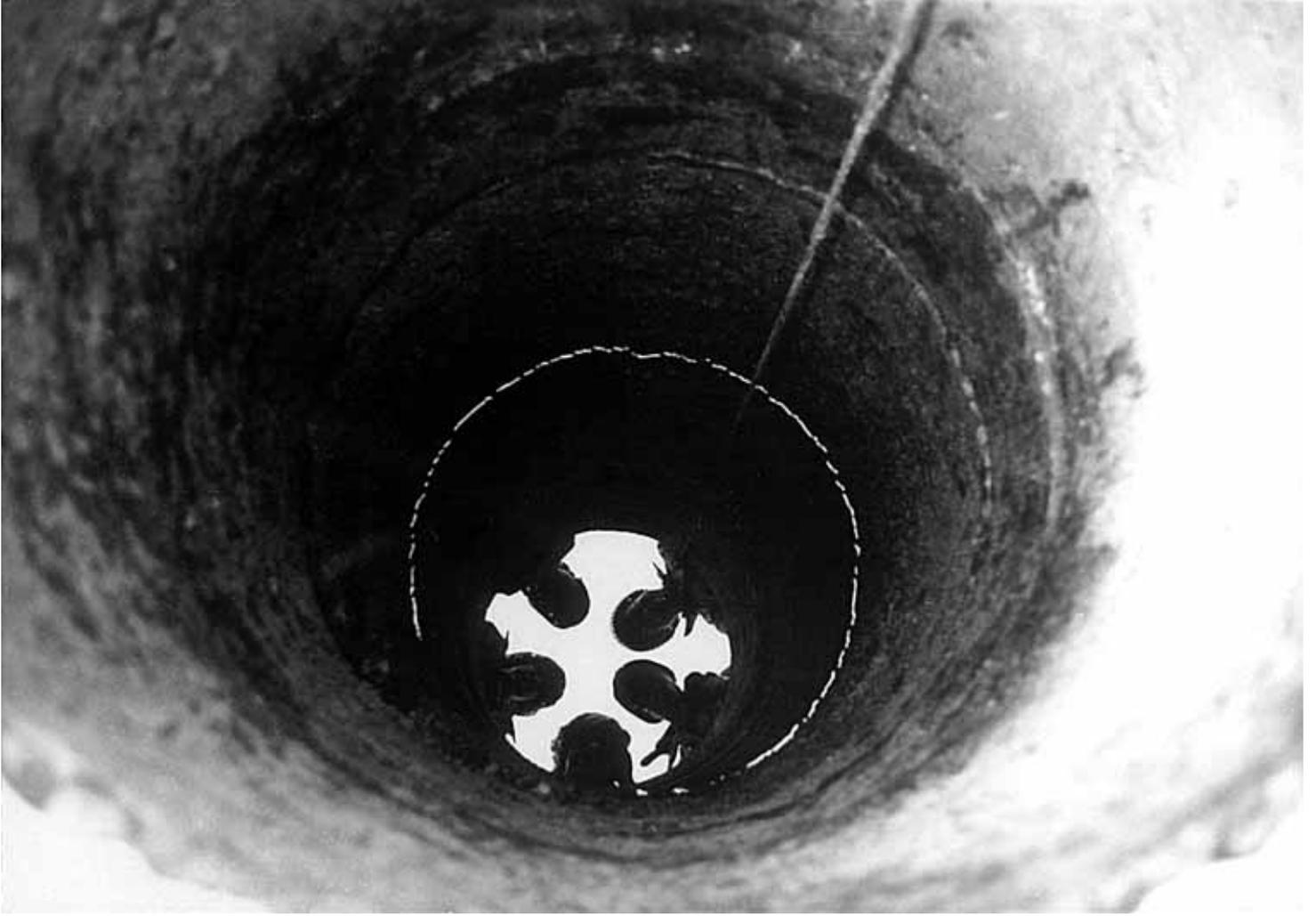


At festival time, schoolyards and county office buildings turned into festival yards. Farmers and workers became performers. These entertainers enjoyed putting on a performance a couple of times a year. The rest of the year, though - as you can see from their worn faces - they were hard at work in other vocations.

축제 때면 학교 운동장이나 읍내 관공서 건물이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농사짓던 농부도 일하던 사람도 이 날만큼은 공연자로 변신했는데 1년에 두 번은 즐겁게 직접 공연에 참가했다. 하지만 주름진 저 얼굴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일했다.



Doorway in late afternoon  
늦은 오후의 대문간



Foreigners in a well, Yesan  
우물 안 외국인, 예산

My fellow Peace Corps volunteers and I were all trying to learn Korean proverbs and one that Koreans often used to express their self-described insulation from the outside world was, "We're like frogs in a well." When several Peace Corps friends visited me in Yesan one weekend, we took this picture to call ourselves "foreigners in a well."

나와 다른 평화봉사단원들은 한국 속담을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그 중 가장 자주 쓰던 속담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 어느 주말 평화봉사단 친구들이 예산에 놀러 왔을 때 우리는 "우물 안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다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Harvest season  
추수철

I enjoyed walking or bicycling along these kinds of roads. You can see stacks of harvested grain in the background. This farmer looks pleased after his work.

나는 이런 논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참 좋아했다. 뒤에 추수한 벼단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의 표정이 흐뭇해 보인다.



Mother and baby  
아기를 업은 엄마

When I first came to Korea a mother would tie her baby to her back and go about her day. There were no western-style strollers or baby carriers; all a mother needed was a blanket. I remember thinking that this particular child had a great head of hair.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하루 일을 하는 것을 봤다. 서양식 유모차나 아기띠도 없었고 담요 하나면 충분했다.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 머리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Taekwondo event  
태권도 행사

When I first arrived in Korea and was in Chungcheongbuk-do in Chungju for Peace Corps training, a number of volunteers in my group started taking taekwondo. We were pleased when we were invited to join a group of Korean women doing a taekwondo exhibition as we did not often find women practicing the sport. This picture commemorates that exhibition and the caption reads "The Winner of the National Women's Championship and U.S. Peace Corps Taekwondo Team, July 25, 1975." In 2009 I met again with our taekwondo teacher, who still has a dojang in Seoul.

한국에 처음 와 충북 충주에서 평화봉사단 교육을 받을 때 같은 그룹에 있던 봉사단원들이 태권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당시 여자가 태권도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여자 태권도 선수들의 태권도 시범에 초대 받았을 때 무척 기뻐했다. 이 사진은 그 시범 행사 때 기념 촬영한 것으로 사진 아래에 "전국 여자선수권 대회 우승 및 미 평화봉사단 태권부, 75.7.21" 이라고 적혀있다. 2009년, 나의 태권도 사범님을 다시 만났는데 아직도 서울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한다.

Students, Yesan Middle School

중학생, 예산중학교

This photograph of two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ir winter uniforms reminds me of how much information each uniform provided. The level of the student was represented by small stripes on the collar and each jacket had the student's nam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The boys always wore uniforms but after a while their personalities began to emerge - like in this photo.

동복을 입은 두 명의 중학생을 찍은 이 사진을 보면 교복만 보고도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새삼 깨닫는다. 교복 칼라에 있는 선은 학년을 나타냈고 상의에 한자로 학생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항상 똑같은 교복을 입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사진에서처럼 각자의 개성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Students in my courtyard

우리 집 앞마당에서 찍은 학생들



Students in the classroom, Yesan Middle School, Yesan  
수업 중인 학생들, 예산중학교, 예산

You can tell these boys were first year students; each student has a single stripe on his uniform collar and their heads are completely shaved. In the lower middle of the photo one of the boys has his chin resting on his book. With seventy students in each classroom, the school days were very long and challenging for both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교복 칼라에 줄이 하나고 머리를 빡빡 깎은 것을 보면 이 학생들이 1학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사진 가운데 아래쪽을 보면 한 학생이 지친 듯 책 위에 턱을 괴고 있다. 한 학급당 학생이 70명이었으니 학교에서의 하루는 교사에게나 학생들에게나 무척 길고 힘들었다.



At the festival  
축제날

I thought it was nice the way these men and women enjoyed the festival with their friends. The ladies on the right had a certain formality about them, laying down newspaper and taking off their shoes before standing on the bench. I also loved their handbags.

사진 속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들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신문을 깔고 고무신을 벗고 벤치에 올라섰다. 들고 있는 핸드백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

Primary school student  
초등학생





Old woman at the market  
시장터의 할머니



Grandmother and little girl  
할머니와 소녀



Seaside  
바닷가



Dancing at the festival  
흥겨운 춤사위



A birds-eye view of the entertainment  
최고의 관람석



Festival-goer  
축제 가는 할아버지



Harvest time  
수확의 계절

The walk to work in winter  
겨울 출근길





Winter walk  
겨울 산책

### Winter landscape 겨울 풍경

Perhaps because I grew up in Arizona, the starkness of the Korean winter never bothered me, especially when it was under a very deep blue sky.

내가 애리조나주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몰라도 황량한 한국의 겨울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눈부시게 파란 하늘 아래 겨울은 더 더욱 그랬다.





Rope with seashells  
소라껍질 밧줄

Nowhere in Korea is very far from the sea, and wherever you go you can enjoy that connection with the water.

한국의 어디든 바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없다. 그래서 어딜 가도 바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Watching the waves

파도 감상



This is my co-teacher, Ms. Kwon, Young-ran. One early spring weekend we took the bus out to the seashore together. There was a biting wind. As she walked out towards the waves it made me think of someone in an English novel. In her spring hat and dress she just stood there and watched the waves.

동료교사인 권영란 선생님을 찍은 것이다. 초봄 어느 주말 우리는 같이 버스를 타고 해변으로 놀러갔다. 이 날 바람이 살을 에는 것처럼 차가웠는데 파도를 향해 걸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마치 영국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같았다. 선생님은 모자를 쓰고 봄 원피스를 입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Fishermen  
어부들



At the beach  
해변



## Coastline view

### 해변가 정경

Fishing villages were sprinkled along this stretch of coastline and each had its own rhythm and way of life. Despite being very picturesque, this area was not considered a destination for tourists.

이 해변을 따라 군데군데 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마다 남다른 리듬과 삶의 방식이 있었다. 사진 속 이 해변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여겨지진 않았다.



Wooden boats  
나무배



Life on the coast  
바닷가의 일상

## Resting fishermen

### 달콤한 휴식

Sometimes I would jump on a bus to the West Sea and spend the day watching the fishermen and their way of life.

나는 가끔 버스를 타고 서해로 가 어부들과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Hiking with Yesan students  
예산 학생들과 함께한 하이킹

Going hiking was always fun although I don't remember that we spoke much English. Looking at this group of students, several of them have recently found me and made contact. One lives in Los Angeles now, another lives in Scotland, and two are teachers.

비록 영어를 많이 쓰지는 못했지만 하이킹은 언제나 즐거웠다. 사진에 있는 학생 중 몇 명이 얼마전 나를 알아보고 연락을 해왔고 지금 이 중 한 명은 LA, 한 명은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고 둘은 선생님이 되었다.



Yesan co-teachers  
예산의 동료 선생님들



Playing games on the maru  
마루에서 한 게임



Abandoned hanok  
버려진 한옥

I often walked by this abandoned house which stood at the edge of Buyeo. People didn't talk about "hanok" back then - they were just houses - and I thought this house with its classic features was really lovely. I had a dream that one day someone would restore it.

부여 끝자락에 있던 이 폐가를 자주 지나치곤 했는데 사람들은 당시 "한옥"을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집으로 여겼고 한옥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한옥의 특성을 갖춘 이 집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이 집을 말끔히 수리해 복구하리라는 꿈을 가졌었다.



Countryside path  
시골길



Out for a walk  
산책



Working on the harvest  
벼를 수확하는 농부들

## Harvest time 추수철

Kids loved being out in the fields during harvest time because they got to see what was going on. Of course their parents liked to have them there so that they could keep an eye on them.

아이들은 추수 작업을 볼 수 있어서, 부모들은 일하는 틈틈이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추수 때 아이들이 눈에 나와 있는 것을 모두가 좋아했다.







Seoul traffic  
서울의 교통

On my rare visits to Seoul, it seemed congested and urban. Now looking at this picture, it strikes me as practically bucolic.

가끔 서울에 갈 때면 서울이 매우 혼잡하고 도시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진이 시골 모습을 찍은 것처럼 보이니 참 새삼스럽다.



Yesan Middle School, Yesan  
예산중학교, 예산

Although you took off your shoes before going into class, the school had a stone path so students wouldn't have to walk in the mud.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었지만 예산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흙탕 길을 걷지 않도록 돌길을 깔았다.



Spring snack with co-teachers, Yesan  
동료 교사들과 간식,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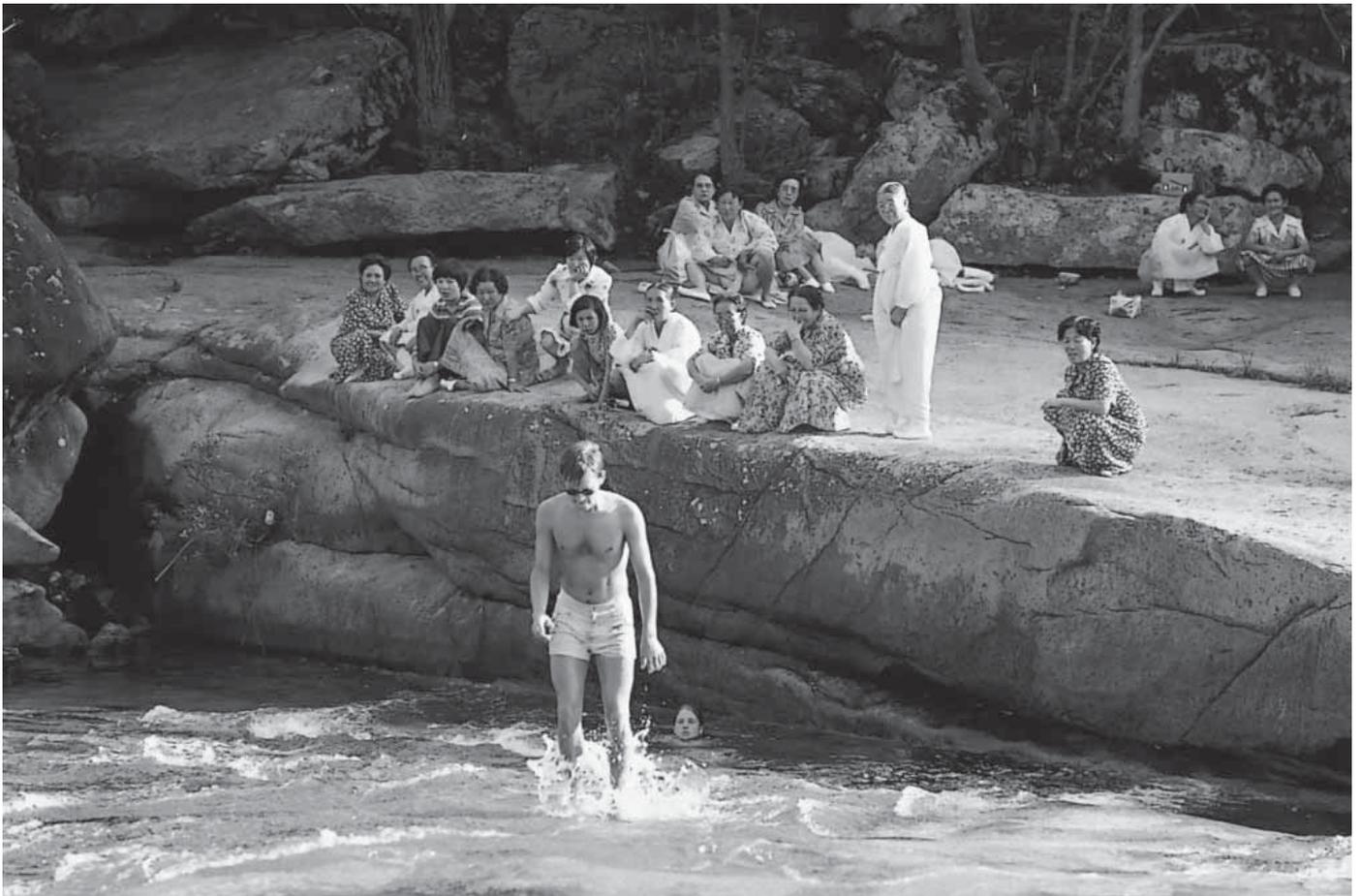
We ate these very sweet tomatoes like fruit, dipping them in sugar and enjoying them in a way that was very new for me.

우리는 토마토를 설탕에 찍어서 아주 달게 과일처럼 먹었는데 내게는 매우 새로운 시도였다.

Trying to stay cool on a hot summer day  
더위를 식히는 방법

It was a hot summer day and everyone was trying to stay cool. We were swimming and jumping into the cool water. The women watching us were bemused.

그 날은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이었고 우리는 어떻게든 더위를 식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는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당혹해하며 쳐다보는 표정이 재미있다.





Yesan Middle School  
예산중학교

Cover Photo of Kathleen Stephens Courtesy of the Sejong Center. Used with permission.  
All other photos courtesy of Kathleen Stephens.  
표지 사진 제공: 세종문화회관 (사용 허가 취득)  
그 외의 모든 수록 사진은 캐슬린 스티븐스 제공